



韓 인도네시아에 마스크 62만5천장 지원 ... “긴밀히 공조”

#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동향

Vol. 32



# 韓 인도네시아에 마스크 62만5천장 지원 ... “긴밀히 공조”

PCR 진단키트 · 소독기 이어 마스크까지 총 100만 달러 상당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KF-94 마스크 62만5천장, 50만 달러(6억원)어치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13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

스크 62만5천장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50만장을 먼저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전달했다.

나머지 12만5천장은 한국 정부의 구매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전달할 예정이다.

김창범 대사는 전달식에서 “마스크는 인도네시아 의료인력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올해 4월 양국 정상 간 통화의 후속 조치”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양국 간에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재난방지청에 분무형 소독기 300대(10만 달러)와 유전자 증폭검사(PCR) 진단키

트 3만2천200회 분량(40만 달러)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까지 인도네시아에 총 100만 달러(12억원) 상당 방역용품을 지원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무거워도 함께 짊어지고 가벼워도 같이 든다’는 인도네시

아 속담을 인용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지원한 마스크는 자카르타의 코로나19 대응 지정 병원을 포함해 각 지역 보건소 등 의료진에게 공급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재난방지청은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이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7만5천699명·사망자는 3천606명이다.

[연합뉴스]

## 조코 위도도 대통령, 금융감독청(OJK)의 금융기관 감독권한 중앙은행으로 위임 고려... “OJK의 코로나19 대응 실망스러워”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은행규제 권한을 금융감독청(OJK)에서 중앙은행(BI)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 끈판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본래의 금융기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OJK)이 코로나19 재난 사태에서 보여준 대응에 실망스러워하며, 이전처럼 중앙은행에 은행규제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3년 말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했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장관들의 ‘위기 의식’이 부족하다며 개각과 기관 해체 단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연초에는 회계감사원(BPK)이 OJK 금융기관이 국내 7개 은행에



대한 감독 능력이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7개 은행은 지난달부터 현금 유동성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하루 인출 금액을 제한한다고 공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은행 부코핀(Bank Bukopin)도 있다.

관계자는 “감독 권한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중앙은행은 만족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과 금융정책 외에도 실업대책도 감독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중앙은행과, 대통령 대변인, OJK는 모두 언급을 거부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 스마랑 3개사서 코로나19 클러스터 발생... 감염자 171명 이상

중부 자바주 스마랑 시의 기업 3곳에서 최근 1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클러스터(집단감염)가 발생해 총 171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일간 폼빠스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간자르 뿌라노워(Ganjar Pranowo) 중부 자바 주지사는 일부 지역의 산업, 의료 기관, 정부 기관 등에서 PCR 검사와 신속 항체 검사 등의 집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간자르 주지사는 “스마랑시·군, 드막 군, 끈달 군을 우선 지역으로 해, 시장과 군수에 대해 집단 검사와 활동 제한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간자르 뿌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

며 “양성자나 농후 접촉자가 확인되면 기업 등의 조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스마랑시 보건국의 압둘 하 감 국장은 클러스터가 발생한

3개사의 사명은 공표하지 않았으며, “감염자 수는 A사가 47명, B사 24명, C사 10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휴식, 예배, 식사 시간 등 위생 규율이 준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스마랑시 노동이주국 관계자에 따르면 6일부터 시내의 기업에 안내장을 송부해, 사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도록 호소했다.

그는 “점심 시간을 번갈아 취할 것과 좌석 간격을 1~2m로 할 것 등 특히 점심 시간에 대한 규율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경제신문


www.f1-logix.com

##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Telp. : +62-21-797-6237

Jl. MT. Haryono Kav. 62 Fax : +62-21-797-6015

Jakarta, 12780, Indonesia E-mail : kor@f1-logix.com

## 반등 빨자자란 대학, 코로나19 백신 대량 임상 시험 계획



서부 자바주 반등에 위치한 빨자자란 대학교(University of Padjajaran, 이하 Unpad) 의과대학의 한 팀이 7월 실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켈뽀의 보도에 따르면, 총 1,640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불활성화 코로나19 백신 후보 '코로나백(CoronaVac)' 백신을 생산하는 대학, 인도네시아 국

영 제약 바이오 파르마(PT Bio Farma) 및 중국 시노백 바이오택(Sinovac Biotech 科興控股生物技術) 간의 다중 파트너 관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팀 리더인 꾸스난디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3단계 시험이며 최종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험의 마지막 단계는 각 도시에서 최소 800명의 지원자가 있어야 한다"며 "팀은 수십 명의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30명의 일반 개업의가 백신 지원자를 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테스트가 통과되면 코로나백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생산 및 유통될 예정이다.

## 마스크와 방호복, 30억 장 이상 수출 가능

아구스 수빠르만포(Agus Suparmanto) 무역부 장관은 국산 마스크와 방호복의 수출을 촉진한다. 지난 1일자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생산 능력이 국내 수요량을 크게 웃돌고 있어 30억 장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시점의 국내 메이커 생산 능력은 작업복이 약 4억 개, 수술용 가운이 9,820만 장, 마스크가 28억 장이다. 반면 수요량은 작업복이 850만 장, 수술용 가운이 320만 장, 마스크는 1억 2,980만 장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지난 달 19일자로 마스크와 마스크 소재, 방호복의 수출 해금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



57호'를 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수출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출 시에는 무역부의 허가

를 얻을 필요가 있다. 아구스 장관은 국내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일단 공포한 허가를 동결하거나 수출업체로부터 접수한 수출허가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 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 에이빌코리아-코트라, 인도네시아 투자청에 손 소독제 기부



▲ 인도네시아 투자청 (BKPM) CSR 행사에는 투자청 Ikmal Lukman 국장 (Deputy Chairman for Investment Promotion), Imam Soejoedi 국장(Sectoral Promotion Director), 에이빌코리아(NACIFIC) Ms. Betari Andika(Marketing Manager of NACIFIC),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이종윤 관장, 이창현 부관장이 참석했다.(사진=에이빌코리아 제공)

에이빌코리아(NACIFIC)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6월 25일, 1억 원 상당의 손 소독제 2만 개를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4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49,009명, 사망자 2,573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으며, 이슬람 국가의 최대 명절인 ‘르바란’ 기간에도 국민들의 고향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등 확

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투자청 (BKPM) Ikmal Lukman 국장, Imam Soejoedi 이사를 비롯해 NACIFIC Indonesia 마케팅 책임자인 Betari Andika,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이종윤 관장, 이창현 부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에이빌코리아의 브랜드인

NACIFIC은 전 세계적으로 1백만 병 이상을 판매한 베스트셀러 제품인 ‘Fresh Herb Origin Serum’ 으로 유명한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회사다.

에이빌코리아의 김형민 대표는 “이번 손 소독제 기부는 브랜드나 제품을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만든 손 소독제가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인도네시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전염병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NACIFIC Indonesia의 브랜드 홍보대사이자 구독자 35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장한솔씨도 이 소식을 듣고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장한솔씨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저희가 준비한 물품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BKPM의 Ikmal Lukman 국장(Deputi Bidang Perencanaan BKPM)은 “인도네시아에 한국 투자는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는 4.5위이고 전체 TOP 10위에 들어간다. 특히 한국은 COVID-19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코트라로부터 도네이션을 받아 기쁘고, 인도네시아와 좋은 협력관계 투자관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손소독제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신해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는 배송, 통관, 행사 등을 지원해 이번 CSR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이종윤 관장은 “KOTRA는 앞으로도 역량 있는 한국의 우수 기업들과 함께 CSR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 인니-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무역 확대 기대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5일,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인니-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이 같은 날에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의 수출은 모두 관세가 0%가 된다. 동시에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도 99%

이상은 관세가 철폐되거나 대폭 낮아진다.

2019년 양국 간의 무역액은 78억 달러 상당이었다. 호주는 앞으로 밀, 석탄, 철광석, 유제품 등의 수출을 늘릴 생각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도 자동차, 섬유 제품, 전자 제품의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아구스 수빠르만토(Agus Suparmanto) 무역부 장관은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세계 경제는 침체되어 있다”며 “IA-CEPA를 통해 현재의 무역 형태는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IA-CEPA 발효에 따라 원산지 증명, 호주와의 관세 프레임워크와 절차에 관한 3개항의 규칙도 이날 공포했다.

터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의회 제4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지와스라야 조사를 맡고 있는 아리아 비마 의원은 이날 “지와스라야 고객들을 위한 최적의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와스라야 폐쇄 이외의 가능성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와스라야는 투자 운용의 실패 등으로 인해 경영 부진에 빠져 있다. 채무액은 35조 9,000억 루피아에 달하며, 5월 말 기준 미지급 보험금은 18조 루피아에 달한다.

## 국영기업부, 새로운 보험회사 ‘누산따라 라이프’ 설립 검토... 지와스라야 고객 이관 계획



인도네시아 에릭 국영기업장관가 국영 생명 보험회사 이수란시 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 폐쇄하고, 국영 보험회사의 지주회사 바

하나 뽀비아난 우사하 인도네시아(PT Bahana Pembinaan Usaha Indonesia, 이하 BPU) 산하에 새로운 회사 누산따라 라이프(PT Nusantara Life)를 설립해 지와스라야 가입 고객을 이관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끈판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영기업부의 까르띠까 차관은 7일 열린 의회 제4 위원회에서 공기업부는 지와

스라야 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회사로 이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현행 계약의 10~14%에서 7% 정도로 낮출 방침이다. 까르띠까 차관은 “새로운 회사에 지와스라야 보험 가입자들을 이관하는 계획이 정부와 의회에서 승인되면 모든 가입자와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8월부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mailto: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mailto: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http://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 연말부터 해외 여행시 카톡으로도 '안전정보' 받는다

외교부 · 카카오 '재외국민 보호 안전서비스' 업무협약



▲ 해외안전, 여행경보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연말부터는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안전 정보나 영사 서비스를 카카오톡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카카오와 7일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및 해외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카카오는 2020년 12월부터 365일 24시간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를 통해서도

외교부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영사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제전화(+82-2-3210-0404)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또 체류 중인 지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종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와 카카오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영사조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보건부, 신속 항체 검사 비용 상한 15만 루피아로 설정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속 항체 검사 비용에 대해서, 상한을 15만 루피아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각 자치 단체의 보건 기관과 전국의 의료 관련 단체에 보낸 안내장으로 지난 6일 통보했다.

신속 항체 검사는 PCR 검사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도 실시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

내를 이동하는 승객 사이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 검사 기관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었다.

보건부 보건서비스국의 밤방 국장에 따르면, 신속 항체 검사의 상한 요금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8일자 미디어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행정 감시기관 옴부즈만의 엘빈씨는, PCR 검사의 요금도 의료 기관에 따라 100만~300만 루피아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준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재훈의 세무상식

## 납세등록증 말소



김재훈 대표

최근 법인 청산과 관련하여 자주 상담 문의를 받고 있는데 세무적 관점에서 폐업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법인 청산은 법인 설립의 인허가 사항과는 유사하지만 관할세무서에 납세등록증 말소에 있어서는 신규 등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납세등록말소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제청장령 PER-20/PJ/2013에 규정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등록 말소신청서와 법인의 청산개시정관을 요구하지만, 이와 별개로 관할세무서별로 NIB 말소승인서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제기본법(UU KUP) 2조 7항에 "국제청장은 납세등록번호 말소 신청에 대해 서류가 완전히 접수된 일자로부터, 개인사업자는 6개월, 법인은 12개월 이내 감사 후 그 결과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납세자가 납세등록번호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기 위한 모든 구비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세무당국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모든 추징세액 등이 완납되어야만 말소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 승인을 거부(Tolak) 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납세등록증 말소를 하지 않으면 납세와 관련된 의무는 계속 유지되어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등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대

부분 폐업을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다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폐업 진행하고 납세등록증 말소는 보류하였다가 최소 2~3년 이상 0(영) 신고 후 납세등록증 말소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끝>

###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 재외공관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도 온라인 인증

대법원은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인증 서비스(아포스티유)를 2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란 문서 발행국 정부가 해당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됐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프랑스어로는 '추신'이란 뜻이다. 지금까지 온라인이나 국내



▲ 대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아포스티

유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재외공관 발급 증명서는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체류국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증명서 활용이 더욱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

#### 입지·설비 보조금

- ✓ 자기의 9~50%
- ✓ 설비금액의 6~34% (국비 100억 한도)

#### 세제지원

- ✓ 법인세 감면: 최대 7년간 50~100%
- ✓ 관세 감면: 설비도입시 최대 100%

#### 인력 고용 지원

-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 고용보조금

- ✓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 / 연 (최대 100명 한도)

#### 스마트공장 및 R&D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50% 등)
- ✓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 지재권 지원

- ✓ 특허청 IP전략 지원사업 우대지원

#### 금융 지원

- ✓ 시설투자 자금 지원
- ✓ 국내사업장 시설자금 보증·보험지원

#### 구조조정컨설팅

- ✓ 구조조정컨설팅 알선 및 비용 일부 지원

###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중설 사업장을 운영한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지분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중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궁금하신가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021-574-1522(권 세영 부관장) | seyoun@kotra.or.kr

###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총 컨설팅 비용의 30%~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 \*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① 구조조정모형 제안 ② 축소대형 ③ 청산대형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형

#### 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

#### 진행절차

사업 신청 →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완료 평가 → 컨설팅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 연중상시(컨설팅 운영 종료 이전에 신청) / 연간 예산 한도 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인니 선원들 잇달아 입국 후 확진 ... “수십명씩 한국 취업” (종합)

##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6만명 · 사망자 누적 3천명 넘어 인니 선원들, 자카르타발 인천행 여객기로 도착 후 항구도시 이동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영종도=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부산·통영에 도착한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같은 날 오후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인도네시아인 남성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의 152번 확진자가 된 인도네시아인 남성은 동부 자바 마두라섬 출신으로, 선원으로 취업한 8명이 함께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비행기를 탄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인 30대 선원도 통영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통영 첫 확진자인 인도네시아인 남성은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전용열차로 부산역에 도착한 뒤 통영시 지원 차량을 타고 통영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뒤 양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달 19일에도 자카르타발 인천행 여객기를 타고 입국해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31세 한국 남성(146번 확진자)과 인도네시아인 남성(147번 확진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인 147번 확진자 역시 부산에서 배를 타기 위한 선원 인력으로 전해졌다. 자카르타 항공업체에 따르면 최근 자카르타발 인천행 항공기에 100명이 타면 30~50명은 선원으로 취업한 인도네시아인 인력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인도네시아인 선원 인력이 꾸준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다. 이들은 편도 표를 끊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KTX를 타고 부산·울산으로 이동한다.

항공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은 통상 항공기 뒤쪽에 구분해서 좌석을 주고, 한국인 등 다른 승객은 앞

쪽으로 자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에서 확인된 152번 확진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자카르타·발리에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은 최소 8명, 인도네시아인은 2명이다.

한편,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칼리만탄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치료 중인 한국인 근로자 2명은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한국인 환자 두 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라 상태가 양호하다”며 “현지인과 한국인 직원 모두

추가 감염자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발릭파판의 현대엔지니어링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A씨(44)·B(60)씨와 현지인 직원 7명 등 총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현장이 폐쇄된 상태다.

한국인 직원 33명이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받고, 2명은 확진, 30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으로 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치료 후 PCR 검사에서 1차 음성판정을 받았고, 2차로 음성판정을 받으면 퇴원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날 1천301명 추가돼 총 6만69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49명 추가돼 총 3천36명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는 3월 2일 첫 감염자 발생 후 4월 30일 누적 1만명, 5월 21일 누적 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하루 1천명을 넘기면서 6월 6일 누적 3만명, 16일 누적 4만명, 25일 누적 5만명을 기록했고, 다시 8일만인 이날 누적 6만명을 넘겼다.

[연합뉴스]

### 유니레버 인니 공장 직원들, 코로나19 양성 반응

네덜란드계 생활 용품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현지법인 유니레버 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의 공장에서 지난 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 드러났다.

국영 안파라통신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문제의 공장을 일시정지했다.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총무 담당자는 엔지니어링 부문의 직원들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설명하며, 서부 자바주 브카시군의 짜카랑 공장을 6월 26일부터 일시정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개시기에 대해서는 밝히



지 않았다. 브카시군의 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태스크포스.TF)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서부 자바주 TF는 지난 2일, PCR 검사를 통해 이 공장에서 21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고 밝혔다. 브카시군 관계자는 이날 “더 이상 새로운 감염자 집단이 제조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세먼지 까지 제거하는 AIR 흡입방식

# 신개념 유해물질 제거 집진기

에어맥스 클린매트

# AIRMAX CLEAN MAT

**설치장소**  
Clean Room/식당/병원/호텔/공장/백화점  
빌딩/마트/학교/극장/터미널/관공서/방송국  
공연장/박물관/발전소/전시장/은행/지하철

**제품 특징**

- 순간 에어 흡입방식
- 신발의 미세먼지 차단(눈, 빗물제거가능)
- 청결하고 깨끗한 업무환경
- 집진기에 의해 모여진 이물질 처리 용이
- 외부 충격에 강함

물류대차, 지게차, 주차장 차량출입구 적용가능

별도 공사 없이 시공가능  
고객 원하는 치수 주문제작

매트 두께 : 20mm

관련동영상

테스트닉

0811-97-8638  
korea\_kij@daum.net  
kakataalk ID : dragon88ind  
PT.ZEUS Component Indonesia

# 인니 부꼬뵌은행 인출 사태에 국민銀 “8월말까지 인수 마무리”

최창수 전무 등 자카르타 날아와 고객·언론 미팅...” 안심하라”  
 “KB그룹, 인도네시아 성장 가능성 평가...’ 마더 마켓’ 으로 키울 것”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부꼬뵌은행의 최근 ‘인출 사태’와 관련해 “2대 주주에서 1대 주주로 올라설 테니 안심하라”며 인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고 고객들을 다독였다.

2일 최창수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전무)는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부꼬뵌 은행의 유동성 등에 문제가 없는데, 최근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현지 언론 보도가 고객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 같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유상증자가 안 끝났으니 국민은행이 아직 부꼬뵌 은행의 법적인 1대 주주는 아니지만, 8월 말까지는 관련 절차가 모두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꼬뵌 은행 지분율을 51% 초과 보유해 경영권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과 직접 만나 국민은행이 2대 주주로서 지금의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고, 1대 주주로 올라서 확실히 경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과 부꼬뵌은행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금융 당국이 확실히 국민은행의 부꼬뵌은행 인수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직접 진출해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크기에 KB그룹의 ‘마더 마켓’으로 키우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마더 마켓’은 본국처럼 키우는 시장을 뜻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밤 자카르타로 날아와 이번 주말까지 부꼬뵌 은행 경영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미팅을 돌린 주요

고객, 현지 기자들과 만난다. 최 대표는 이날 현지 매체를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은행이 대주주가 될 테니, 부꼬뵌은행 고객들은 믿고 안심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부꼬뵌은행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인수 당시 부꼬뵌은행은 자산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14위의 중형은행으로, 지점망 320여개를 보유했다.

올해 들어 국민은행이 부꼬뵌은행 경영권을 가져오는 방안이 부상했고, 지난달 국민은행이 2억 달러(2천415억원)를 부꼬뵌 은행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에스크로 계정은 계약에 서

명하는 등 일정 조건에 이를 때까지 결제 금액을 예치해두는 계정을 뜻한다.

국민은행이 부꼬뵌은행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투입하는 자금은 2억 달러 선에서 결정되며, 지분율은 인수 종료 단계에서 확실히 결정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달 중순 국민은행의 부꼬뵌은행 인수가 공식화된 뒤 왓츠앱 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 “자금이 묶여 돌려받기 힘들 것” 등의 소문이 퍼졌다.

이에 ‘현금 인출’을 원하는 고객이 몰리면서 부꼬뵌 본사를 비롯해 일부 영업점들이 현금 인출 인원을 하루 150명으로 제한해 새벽부터 긴 줄이 만들어졌고, 시내 곳곳의 부꼬뵌은행의 현금인출기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은행 측은 부꼬뵌은행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양쪽에서 부꼬뵌은행 인수를 위한 법적·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인 보험에 관심 높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건강과 재정적인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6월 2일 현재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9일 현재 55,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보험가



▲ 이미지=픽사베이

입율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장조사회사인 닐슨과 캔터, 마크플러스 등 2020년 연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인도네시아 국민의 4분

의 1은 건강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35%는 건강보험을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

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 지출은 1.79%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8.92%보다 훨씬 낮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이후, 보험 가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과 의료보험 시장은 2019~2024년 기간에 연평균 7.7%의 복합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알리안츠생명보험의 까린 줄까르나엔 마케팅 담당 책임자는 “이제는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금액으로 최대한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 시작합니다!

도서관/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털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털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전입 신청 폭증 ... 코로나 효과

## 등교금지 상황 계속...외국계 국제학교 대비 학비 50% 이하 · 실시간 수업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직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전입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 전입생이 각각 2배, 3배 늘어난 반면 전출생은 거의 없는 상태다.

지난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특파원이 직스 교무실을 방문해보니 이날 하루만 해도 학생 10명의 전입 상담과 신청이 이뤄졌다.

전입 서류를 낸 박원준(9학년) 학생의 어머니는 “첫째 딸은 이미 직스에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은 외국계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이번에 전학하기로 결정했다”며 “본래 외국계 국제학교에 보낸 것은 영어 때문인데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계 국제학교는 온라인 수업이 느슨하게 이뤄지지만, 직스는 등교할 때와 똑같이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한다”며 “직스는 교사와 학생 모두 카메라를 켜고 기존 시간표대로 수업하기에 딸 아이의 경우 쉬는 시간에 방 밖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입 희망자 반진혁(11학년) 학생의 아버지는 “자카르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아서 아들을 그동안 유치원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에 보냈다”며 “아들이 문·이과 전과를 희망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후 현지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직스로 전학시키고자 한다”고 말



했다. 익명을 원한 전입생의 어머니는 “가을학기에도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천만 원을 주고 외국계 국제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시키고 싶지 않아 직스 편입을 결심했다”며 “기존 국제학교 원어민 교사들은 미국, 영국으로 돌아간 뒤 시차 때문에 실시간 수업을 하지 않고, 동영상 올려주거나 과제만 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직스와 다른 국제학교의 학비 차이가 크다. 직스의 학비는 입학금까지 더해 연간 1천만원 안팎이지만 미국계 자카르타국제학교(JIS)의 연간 학비는 입학금을 더해 초등생 3만400 달러(3천657만원), 고등학생 3만4천300 달러(4천150만원)이다.

자카르타의 다른 외국계 국제학교들도 학비가 연간 2천만원~4천만원을 오간다.

학부모들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3월 중순부터 모든 등교가 금지됐고, 가을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전입 상담을 맡은 윤일성 직스 중등 교감은 “현지 학교나 외국계 국제학교의 온라인 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반응이 크다”며 “통상 한국

대학교 진학을 위해 9학년 때 전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7~11학년까지 다양한 학생이 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을 담당하는 유효선 교감도 “보통 5~6학년 때 외국계 국제학교로 전학 갔다가 9학년 때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작년에도 5~6학년 아이들이 20명이 넘게 전학 갔었다”며 “그런데 올해는 전학하겠다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3월 2일~7월 1일 기준 직스 전입생 수가 2018년 10명, 2019년 16명이었던데 비해 올해는 벌써 32명이고, 이달에도 줄줄이 전입 상담이 예약돼 있다.

직스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기존 수업표대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는 데는 김윤기 교장의 의지가 컸다.

김 교장은 “다른 학교들은 주당 수업 단위 수를 줄이거나, 수업 시간 자체를 줄이는데 우리 학교는 45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을 그대로 지킨다. 국·영·수뿐만 아니라 체육·음악·미술, 방과 후 수업, 동아리 활동까지 모두 오프라인 수업과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사람은 항상 평

갯거리가 생기면 편해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니까, 원격수업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 대신 화상 수업으로 방식만 다르게 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어가자고 교사들과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직스의 학생은 637명, 교사는 한국인 46명·원어민 17명·현지인 3명이다. 수업하는 교사 가운데 본국으로 귀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 교장은 화상회의 앱 줌(Zoom)에 교사들을 모두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교실에 인터넷 전용선 증설, 최신식 노트북 20대 추가 구매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

교사들은 현재 자택 또는 빈 교실에서 화상 수업을 하고 있다. 역사·사회과목 유은규 교사가 빈 교실에서 컴퓨터로 수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중간 중간 메시지를 통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교무실에서는 한 교사가 “어머니, A가 5교시(화상)수업에 들어오지 않아 연락했어요”라며 학부모와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다.

만약 인터넷 접속 불량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화상 수업에 불참하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결 기록이 남는다.

직스 교사들은 통상 7~8월에 전학 신청이 풀리기 때문에 올 가을학기 재학생이 예년보다 훨씬 더 늘 것으로 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직스는 한 때 재학생 수가 1천653명(2001년)에 이르렀다가 교민 수 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600명 선까지 줄었지만, 올해는 특수하게 ‘코로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직스 졸업생은 1976년 개교 후 작년까지 총 2천672명이다. 올해 2월 졸업생 75명은 전원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했다.

[연합뉴스]

## 시티링크, 기간 한정 PCR 검사 무료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PT Garuda Indonesia) 산하의 저가항공사(LCC) 시티링크(Citilink)는 2일, 자사의 항공편을 7일까지 구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속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탑승 기간은 31일까지이며, 하루 선착순 500명 한정 서비스다.

시티링크의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항공권 구입 시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티링크의 제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탑승 12시



간 전까지 병원에 갈 필요가 있다. 검사 결과는 10분 정도면 판명된다.

한편 앞서 LCC 라이온에어 그룹(Lion Air Group)은 산하의 라이온에어(Lion Air), 바틱에어(Batik Air), wings에어(Wings Air) 등 3개사의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신속 검사를 실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사 비용은 9만 5,000루피이다.

## PT. BOSUNG INDONESIA

#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곳에서 30여년 가까이 사업하다 보니 그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질병으로 사망하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병원만 가까이 있어도 그들이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내가 파푸아에 도착해 던진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사진 2 이동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클리닉 아시끼의 의료진을 배웅하는 Kapoho 주민들

내가 처음 파푸아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8년 10월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코린도라는 기업이 협력해 파푸아주 보벤디굴군 자이르만 아시끼리에 지은 병원 운영에 대한 컨설팅 의뢰가 그 시작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이다.

코린도는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깔리만탄과 자카르타 근교에서 합판, 제지, 조림 사업을 하면서 파푸아에는 1993년에 첫 진출을 했다. 이 기업은 파푸아 진출 초기에는 합판 공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팜 농장까지 운영하며 막대한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코린도그룹의 다양한 사업분야 중에 보건 의료 관련 사업은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아시끼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병원을 세운 것이다. 현재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공동 사업은 종료되었고, 2025년까지는 코린도그룹이 비용과 운영을 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후부터 지방정부와 예산을 부담하다 2030년 이후 100%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코린도는 병원 운영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지방정부에 현납할 병원 운영에 왜 그렇게 열정적인가’였다. 나의 의문에 대해 클리닉 아시끼의 Dr. Firman Jayawijaya는 “병원은 단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여 스스로 자립하고 자신의 삶의 살아가도록 하

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자카르타를 거쳐 만 36시간을 비행기로 차로 여행한 뒤 숲 속 한가운데서 만난 클리닉 아시끼는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이 기본적인 시설 장비가 잘 갖춰진 현대식 건물이었다. 이러한 광경에 기업이 지역 사업에 참여할 때 이익 추구를 우선시 할 것이란 나의 고정관념은 무너졌다.

파푸아는 지리적으로도 매우 낙후되어 있지만, 특히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많은 돌봄이 필요한 곳이다. 보벤디굴군 보건지소의 2016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당 115명으로 인도네시아 전체의 3.5배 수준에 달했고, 또한 신생아 사망률 1,000명당 54명으로 인도네시아 전체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산부의 병원 방문 비율 또한 22%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평균인 87%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파푸아는 전통적으로 지역 주민이 현대의학보다는 민간요법을 더 신뢰하고 의존하는 편이다. 또한 아시끼 지역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은 육로로 2시간 거리에 있었고, 중증 환자와 응급 수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은 육로로 6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파푸아의 지역 보건 의료의 상황은 좋지 않았고, 이를 오랫동안 지켜 봐왔던 기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 단순히 병원 건물을 짓고, 의료장비를 설치해 지역 사회에 희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린도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현

지 의료인력을 교육시켜서 보건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 보건 의료의 틀을 세우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중이다.

현재 보벤디굴군 자이르만 아시끼리에 위치한 클리닉 아시끼는 1차 진료 기관으로 무엇보다 예방과 보건 의료에 대한 인식과 행위 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병원 진료를 꺼리는 산모들을 위한 산모 교실을 열어 산전, 후 검사의 중요성과 안전한 출산에 대한 교육과 산전, 후 관리를 통



▲ 사진 1 이동진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Kapoho 주민들

해 건강한 임신과 분만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고위험 주민들에게 맞춤형 보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 오기 힘든 숲 속, 골짜기 마을을 정기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예방접종, 투약 등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중보건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시끼와 같이 지리적으로 소외된 지역까지 지방정부의 손길이 미치지엔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끼는 일차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당연히 지역주민의 누려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클리닉 아시끼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공중보건정책의 기초 하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완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역보건의료 시스템에 기여하고 있다.

코린도그룹은 이번 COVID-19 사태에도 의료, 보호 장비가 부족한 파푸아 지역 사회에 마스크나 방호복 등을 기증해 주민들과 의료진들의 안전을 기원했다고 한다. 민간기업은 이처럼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펼치고 있다. 파푸아의 이웃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 하나만을 바라보고 말이다.

파푸아의 기억을 떠올리며 일차보건의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1978년 알마타 선언에서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란 목표를 내걸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다. 이렇듯 인도네시아 정부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코린도와 같이 비록 보

협력과 노력으로 “우리”의 것이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클리닉 아시끼에서는 환자를 진료하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중증 환자를 응급처치를 해서 상급병원으로 후송시키고 찾아오지 않는 주민들을 찾아서 마을 순회진료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항상 든든히 지키는 지역의 만형 같은 코린도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클리닉 아시끼는 한국 정부-인도네시아 기업-인도네시아 지방정부간 협력의 우수사례이다.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지역사회의 보물같이 클리닉 아시끼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재의 수준으로 클리닉 아시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과 의약품, 시설 운영비 등 최소한의 재정이 담보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클리닉 아시끼가 지방 보건당국으로 이관됐을 때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기업 코린도가 쏟은 정성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보건당국의 노력이 만나 협력하면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곳을 다녀온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진료를 받으러 온 주민들의 감사 인사와 클리닉 직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앞으로도 클리닉 아시끼는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부담없이 찾아 와서 의지할 수 있고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오래 유지되길 바란다.

파푸아의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나는 오늘도 빌어 본다.



**조명선** 박사  
 서울대학교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부장 역임  
 한국국제협력단 ODA 보건전문가 역임  
 전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현 전주비전대 교수

## 주요 브랜드 2020 광고 촬영 스토리 (22) 당신의 여름 옷장을 채울 옷은?

### 버버리

버버리는 켈달 제너가 직접 촬영한 화보에 CGI 기술을 덧씌워 화보를 완성했다. 버버리 TB 서머 모노그램은 스케이트 공원과 수영장에서 영감을 얻은 기하학적인 무늬를 구현했다. 화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에 맞춰 모델이 직접 화보를 촬영하도록 했다.



### 타미진스

타미진스는 에이프와 손잡고 콜라보 캡슐 컬렉션을 출시했다. 'TOMMY JEANS X AAPE BY \*A BATHING APE' 는 90년도 스트릿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이번 컬렉션은 90년대 힙합 무드를 표현하기 위해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위주로 제작했다



**구찌** 리그오브레전드 (LoL) 유러피언 챔피언십 프로팀 프나틱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구찌다이브 시계를 디자인했다. 프나틱 콜라보를 기념해 '구찌 다이브' 게임도 선보인다. 프나틱 로고가 새겨진 잠수함을 타고 해저동굴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코인을 모으는 게임이다.



### 피브비

골프웨어 브랜드 피브비는 2020 첫번째 시즌 컨셉인 '잘 치지 않아도 괜찮아' 문구를 바탕으로 골프에 막 흥미를 느낀 사람들의 라운딩을 위트있게 표현했다. 피브비는 기능성에 옷을 제한하던 골프웨어에서 벗어나 밝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한다.

## 나이키 · 자라 · 아디다스, 브랜드 가치 '최고'

브랜드Z 100 탑 순위  
어패럴 부문 3개 올라

어패럴 톱 10 (가치 단위:백만달러)				
순위	브랜드	국가	브랜드 가치	변화
1	나이키	미국	49,962	6%
2	자라	스페인	21,286	-6%
3	아디다스	독일	14,812	11%
4	롤루레몬	캐나다	9,669	40%
5	유니클로	일본	8,217	-16%
6	H&M	스웨덴	4,662	-27%
7	언더아머	미국	2,598	-34%
8	노스페이스	미국	2,449	-14%
9	푸마	독일	2,134	신규
10	마시모두피	스페인	1,844	신규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의류 브랜드로 나이키, 자라, 아디다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란히 지목됐다.

'2020 브랜드Z 탑 10 가

장 가치 있는 브랜드(2020 BrandZ Top 100 Most Valuable Global Brands)' 순위 목록에 어패럴 카테고리에서

는 나이키(21위), 자라(57위),

아디다스(92위)가 100대 순위 안에 꼽혔다.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Brand Value)는 499억 달러로 평가됐다.

칸타(Kantar)와 WPP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꼽힌 100대 브랜드에 리테일 카테고리 분류된 아마존이 총 순위 1위에 올랐다.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4159억 달러)는 올해 32% 증가했다.

리테일 카테고리 내 다른 브랜드들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브랜드 가치 1525억 달러로 총 순위 6위에 올랐다. 홀디포가 16위, 월마트가 27위, 코스트코가 47위, JD닷컴이 52위, 이케아가 72위, 독일 알디가 84위, 로우스가 96위에 올랐다.

루이비통은 럭셔리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총순위 19위의 루이비통 외, 샤넬(34위), 에르메스(39위), 구찌(49위)가 100대 순위 안에 들었다.

브랜드Z 탑 100은 광범위한 소비자 조사와 시장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와 예상되는 브랜드 파워와 기여도에 대한 것이다. 올해로 15번째 목록이 발표됐다.

100개 브랜드의 총 가치는 올해 5조 달러로,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5.9% 증가했다. 리테일 섹터의 브랜드 가치 성장세가 21%로 가장 높았다. 주요 이커머스 브랜드들이 이를 주도했다.

아마존, 알리바바, JD같은 이커머스 리테일 브랜드들은 힘든 시기가 시작된 이후 혁신

과 민첩성을 보였고, 월마트는 이커머스 강화에 투자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100대 목록 안에 들지는 않았으나 어패럴 카테고리 내에서 높게 평가된 애슬레저 브랜드 롤루레몬은 요가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에서 오피스에서 입을 수 있는 의류로 포커스를 전환하며 가치가 지난

해에 비해 40% 상승했고, 온라인 요가 강좌도 제공했다. 어패럴 카테고리는 코로나19 매장 운영 임시 중단이 임팩트로 카테고리 가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목록에 다른 카테고리로는 테크놀로지, 결제, 패스트푸드, 로지스틱스, 엔터테인먼트, 텔레콤 제공회사, 화장품, 자동차, 은행 등이 있다.

## 인도네시아 소비자들, 여전히 외출 꺼려

인도네시아가 지난 6월 중순부터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 보편 지침을 적용하기로 하고 준봉쇄조치인 '대규모 사회적계약'(PSBB)을 완화했지만 소비자들이 여전히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칸타르(Kantar)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지방정부 당국이 PSBB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외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9일~19일 기간에 4천명 이상의 소비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 46%가 "외출에 대해 걱정"한다고 응답해, 일주일 전 40%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28% 줄었고, "외식을 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15%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68%의 응답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높다"고 응답해, 지난 3월 코로나19 시작 때보다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

한편 재정적 불안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응답은 47%에서 39%로, "직업이나 소득이 걱정된다"라는 응답은 52%와 44%로 각각 줄었다.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인도네시아(Nielsen Indonesia)는 올해 1분기(1~3월) 월별 가계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닐슨인도네시아는 1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쇼핑몰을 찾는 이유'는 이라는 질문에 "식품 구매"가 65%, "기분 전환"이 65%라고 각각 응답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검품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 제7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 상품화에 추천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9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출처 : 한국섬유신문

## 국내 벤더, 원단 업체 품수 지급

### 콜스 · 갭 · 아세나 등 美 유통 바이어 코로나19 묵인 돈 지급 의류 벤더 밀린 원부자재 대금 오더 취소분 떼고 지급

바이오 취소 · 팬딩 피해액 원단 업체에 전가 강한 반발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국 벤더와 맺은 오더 계약을 무차별 취소하고 선적 완료된 완제품 의류 대금을 주지 않던 미국 유통바이어들의 '갭' 질 횡포가 많이 해소되면서 미지급 의류 대전의 상당 부분이 입금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어의 수출 대전 지급 거절을 이유로 국내 원·부자재 공급 업체들에게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온 국내 의류 벤더 중 상당수가 밀린 원부자재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대형 의류 벤더들이 밀린 원단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이미 원단 공급 이후 벤더 해외 봉제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했거

나 생산에 투입된 원단 대금을 주지 않고 싹둑 잘라 지급을 거절해 원단밀 등과 심각한 대립 현상을 보이고 있어 대형 의류 벤더의 갑질이 다시 도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미국 내 매장을 대거 문을 닫는 콜스를 시발로 상당수의 미국 바이어들이 정당한 절차와 관행에 의해 계약된 한국 의류 수출 업체와 정식 계약한 수출 오더를 무차별 취소하고 심지어 완제품 선적분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고약한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바이어 갑질에 국내 피해 벤더들이 한때 법적 소송 불사 움직임까지 벌이면서 한국 벤더와 미국 유통 바이어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조

성됐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미국 바이어들이 미지급 금액의 50% 또는 그 이상의 수출 대전을 지급하기 시작해 다소 해결 기미로 반전되고 있다.

콜스에 이어 갭·아세나(안테일러) 등도 최근 코로나19 이후 보류시킨 한국 벤더에 대한 의류 납품 대전을 지급했으며 다른 바이어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점차 편승하는 입장을 보여 코로나19로 완전히 차단된 미국 유통바이어의 물품 대전의 부분 지급 재개와 가을 상품 오더가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생산 중인 제품까지 무차별 캔슬 당해 손실을 입었다며 이미 해외 봉제

공장에 납품이 끝난 원단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몽그적거리던 의류 벤더들이 콜스와 갭·아세나 등으로부터 들어온 물품 대금을 활용해 원단 업체들에 대한 밀린 대금 지급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 벤더들이 원단을 공급받아 해외 공장에서 의류 완제품을 생산했거나 생산라인에 물려있는 오더까지 바이어로부터 캔슬 당하고 돈을 못 받은 고통을 그대로 원단 업체 등 거래 협력 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해 의류 벤더를 믿고 공급해 온 원단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콜스나 갭 등 미국 바이어로부터 미지급된 의류 납품 대금이나 생산에 물려있는 오더가 중단된 데 대해 원단 업체도 "의류 벤더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오더 최소 물량 또는 팬딩 금액만큼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이어 팬딩 오더 "원단 업체에 고통 분담" 강요 황당 의류 벤더 측은 바이어로부터 완

제품은 물론 생산에 투입된 원단까지 오더가 취소된 이상 "벤더만 손해 볼 수 없다"며 "원단 공급 업체가 피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단 공급 업체들은 오더 팬딩 또는 취소는 미국 유통바이어와 한국 의류 벤더 간의 문제일 뿐 자신들은 의류 벤더의 정상적인 오더 발주에 의해 원단을 공급했을 뿐인데 바이어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원단 공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유통 바이어의 '갭' 질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죄 없는 원단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의류 벤더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지적. "미국 바이어에 못 받는 분풀이를 원단 업체에 돌린 것은 법과 도덕적 상거레 질서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섬유신문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9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http://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



## 세아상역, 코로나 불황 모른다

- 美 정부에 마스크 2억 장 수출, 방호복 포함, 2억불 상회
- 올 수출 2조원 거뜰, 계열 태림포장, 인디에프 포함 3조 5천억
- 의류 벤더 대다수 코로나 공황 불구 세아는 작년 수준 상회



국내 최대 규모의 의류 수출 벤더인 세아상역(회장 김웅기)이 코로나19 대공황에도 끄떡없이 펄펄 날고 있다. 코로나19로 세계 섬유패션 수요와 공급망이 붕괴된 가운데 국내외 의류 벤더들이 하나같이 매출 감소와 정비레이익 감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해 세아상역은 코로나19 특수인 마스크와 방호복을 통해 의류 매출 감소를 100% 이상 커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정부와 특별 계약을 통해 7월까지 약 2억 장 규모의 마스크 수출 계약을 맺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남미 공장을 통해 본격 양산 공급하고 있다. 세아가 미국에 공급한 마스크는 대부분 면 100% 소재이

며 이와는 별도로 CVC 소재의 방호복 수천만 장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세아가 미국 정부 기관에 생산·공급한 마스크 원단은 국내 최대 순면 니트 원단밀인 J사가 약 300만kg 규모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7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스크와 방호복 공급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세아는 올 들어 7월까지 마스크와 방호복을 통해 약 2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져 코로나19 사태로 감소된 의류 오더의 브레이크를 완전 커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아상역은 올 수출이 작년의 18억 달러(2조원) 수준과 같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국내 의류 수출 벤더 중 규모와 내용에서 가장 우등생 경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세아상역 그룹은 모기업과 별도로 새로 인수한 국내 최대 골판지 전문의 태림포장과 내수 패션 기업인 인디에프를 포함, 계열사를 포함해 연간 그룹 매출이 3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재계 중견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외)  
82mm x 35mm x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대한민국 No.1 보일러

#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